틀에서 벗어나기 Ⅳ.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1.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C.S. 루이스〉, 〈댈라스 윌라드 박사〉, 〈유진 피터슨〉, 〈리처드 마우 미국 풀러신학교 전 총장〉, 〈크리스천 변증가 조시 맥도웰 목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 1945년 교수형, 39세에 삶을 마감. 히틀러에 대항하다 순교 /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강조. (행동 신학자)
-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기도 했던 본회퍼 목사는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전형적 모습인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 '살아내는 삶'을 사는 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본회퍼 목사를 그리워하겠는가?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생생히 자리 잡고 계신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메세지는 근본적으로 종교 및 도덕과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했다

2. 왜 행동해야 할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본질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된다' 비본질적인 것, 악한 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된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 그 대표적 시대가 있다. 바로 다니엘의 시대와,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이다.

(1) 악이 법이 되다 - 금신상에 절하는 법

[다니엘 3:1-7]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다. 2,3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각 영역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 모았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들은 나라의 살림과 행정, 법을 제정하고 책임지는 자들이다. 악한 왕 느브갓네살 왕의 스피릿을 법제화하는 사람들이다. 법은 강제력이 있다. 6절을 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화형당하는 강력한 법이 제정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 비껴갈 수 없다. 사탄의 통치도 이와 같다. 그가 만든 '악한 영'이 있다. 에베소서 2:2절을 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악한 영이다.

[에베소서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노예처럼 묶는다. 사람이 왜 중요한가? 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모두 마찬가지이다).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모두 사람이다.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고 범죄하여 땅의 권세를 장악한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영역의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2) 다니엘과 세 친구 – 법과 싸우다.

[다니엘 3:11-12]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금 신상에 절하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 왕의 설득이 있었음에도 단호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이 집행되어 풀무불에 던져졌다. 말씀을 보니 그들이 불속에서도 상하지 않았다. (25절)

[다니엘 3: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신들의 아들'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세상의 왕들에게 들어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세상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다.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3)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다.

[다니엘 3:26-30]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

ㄱ) 26절 : 그들이 악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세상의 왕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경배한다.
ㄴ) 28, 29절 : 느부갓넷살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금 신상을 섬기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정한다.
ㄷ) 30절 :하나님을 높이는 법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렸던 바벨론 지방에서도 그들은 높임을 받았다.

3.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악법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영역의 리더들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와 행정부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국회의원들, 행정 각료가 일어나야 한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폐하고, 성경의 가치에 입각한 법들을 만들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야 한다.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진짜 신실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4.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

(1) 뜻을 정한 사람들 :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이 정해진 사람들이다. 뜻이 분명하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목적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들이다.

(2) 경건생활 :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건생활을 주목하라. 다니엘은 언제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경건생활이 몸에 체화된 사람이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경건의 훈련이 몸에 체화된 사람이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경건생활의 핵심이며, 이 친밀감은 믿음의 싸움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된다. 그러므로 경건생활은 선택이 아니다. 실재적 힘의 원천이 된다.

(3) 성품적으로 성숙한 사람 : 사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 성숙한 사람들이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성숙함은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는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서, 정작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성숙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